

東晉時期 門閥의 樣相

김진영*

<目 次>

1. 머리말
2. 문벌의 양상
 - 1) 문벌의 차별
 - 2) 북방 이주문벌과 남방 토착문벌의 갈등
3. 맺음말

1. 머리말

중국의 사회는 春秋말년 봉건제도가 파괴된 이후, 秦·漢대까지 고정적인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漢初 공신집단은 정치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누리기는 했으나 그것도 잠시였을 뿐이며, 평민과는 貧富의 차이에서 구별이 있었을 따름이었다. 漢武帝 이후 太學의 건립과 選舉制度¹⁾의 시행으로 평민이 관리가 되는 기회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등 계급 간의 유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특수 계층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漢代 정권은 儒學을 숭상하여 經學이 특히 발전하였다. 당시 유학자는 학술을 연마하는데 매우 엄격하여 독특한 家法으로 자손들을 가르치는 관습이 있었다. 漢代 정권은 經學으로 뛰어난 유학자를 조정의 관리로 임명하였으며,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관리의 후손은 자연 관직에 계속 등용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세력세습은 소위 '門閥'을 형성하게 되었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西晉과 東晉 두 시기에 걸쳐 정권을 장악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각 종의 특권을 누렸던

* 인덕대학교 중국어과 조교수

1) 漢代의 인재선발방식. 選舉는 選拔과 薦學의 합성어로서, 郡守가 인재를 선발하여 조정에 천거하면 관리로 임명하였다.

門閥의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는 엄격히 계급을 구별하였으며, 「上品에는 寒門世族이 없고, 下品에는 權門勢族이 없다(上品無寒門, 下品無世族)」라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世族과 寒門은 비록 같은 士人계층이지만 두 계층 사이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寒門士人은 權門世族의 압제와 천대로 항상 배척당하였으며, 이렇게 조성된 사회분위기는 정권 또한 관여하지 못하였다.

한편 남방의 世族에는 '僑姓'과 '吳姓'의 구별이 있었다. 僑姓은 북방에서 이주한 성씨들로 琅邪 王氏·陳郡 謝氏·陳郡 袁氏·蘭陵 蕭氏가 대표적이었으며, 吳姓은 강남 지역의 토착 성씨들로 朱·張·顧·陸씨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그 지위는 僑姓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²⁾ 당시 東晉 정권은 관리 임명 등 남방의 토착 世族에 배타적이었으며, 남방의 토착 世族들 역시 계속해서 멸시와 홀대로 정권에 협력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치적·사회적으로 침여하게 대립하였다.

이렇듯 東晉시기 門閥의 모습은 시대분위기와 발맞추어 전후 시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五代에 이르러 世族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후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특수한 문화현상의 하나인 門閥의 형성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아울러 《世說新語》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당시 하나의 구체적이고 완전한 사회계급으로 발전한 東晉시기 門閥 사회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문벌의 양상

西漢末부터 형성된 莊園이라는 세습재산을 배경으로 한 호족세력의 관료화와 귀족화로 인해 중국의 중요한 문화현상 중의 하나인 門閥士族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세력은 개국공신 및 황실의 인척, 막강한 재력을 배경으로 등장한 세력, 그리고 經學을 家法으로 전수하여 형성된 세력의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세 번째 세력이 門閥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漢代는 儒學을 숭상하여 經學이 특히 융성한 시기였다. 당시의 학자들은

2)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106쪽 참조.

經學 연구에 있어 소위 '家法'이라는 독특한 견해들을 갖고 있었는데, 經學 연구에 있어 매우 엄격하여 쉽게 가르치려하지 않고 가문의 秘法으로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에 某家の 학문은 수 십 년이 지나도록 대대로 전해지며 발전하였다. 당시 조정은 經學으로 인재를 등용하여 관리의 임용과 郡國의 推舉는 대부분 經學에 뛰어난 인물이 선발되었다. 이로 인해 몇몇 가문은 經學으로 대대로 公卿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력의 세습은 소위 '門閥'을 형성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특수한 지위를 누리게 됨으로써 이것이 점차 世族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³⁾ 世族은 東漢 이래 주도세력 내부에서 조금씩 형성되어 새롭게 등장한 官吏大族으로, 이들은 西晉과 東晉 두 시기에 걸쳐 정권을 장악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각 종의 특권을 누렸다. 이들에 의한 경제력의 장악은 곧 정치적 지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치적 특권의 결과 門閥세력의 伸張과 계급제 차별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고⁴⁾ 曹魏시기에 이르러서는 九品中正制⁵⁾의 제정으로 門閥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다.

漢代 정권은 經學에 정통한 유학자를 중용하였으며 그 후손들까지도 조정의 관리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세력세습을 배경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던 門閥士族은 士族들에게 무시당했던 宦官의 후예 曹操에 의해 핵심인물들이 피살되어 한 때 쇠퇴하였다. 그러나 220년 魏 文帝 曹조는 漢을 찬탈하여 즉위하기 직전 陳羣의 건의에 따라 각 州에는 大中正官을, 각 郡縣에는 小中正官을 두어 鄉里間에 이루어졌던 인재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게 하였고 上上, 上中, 上下, 中上, 中中, 中下, 下上, 下下의 9품으로 나누어 관리로 임용하게 하는 九品中正制를 실시함으로써

3) 上揭書 102쪽 참조.

4) 楊美愛 〈世說新語新探—從世說新語探魏晉之思想社會與亡國〉: 《弘光護專學報》 1978, 6권 52쪽 참조.

5) 종래의 관직등용이 흔히 세력가의 인연에 좌우되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관리후보자를 정선해서 그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자 지방의 郡에 中正이라는 관직을 두고 그가 책임을 지고 등급을 매겨 중앙정부에 추천하게 했다. 中正이 2品이라고 査定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중앙이 정한 9품의 官階중에서 2品보다도 4등 낮은 6品官에 우선 임용하는 것이 그 규정이었다. 인재를 인연에 좌우하지 않고 등용한다는 당초의 목적은 지방의 中正 자신도 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쳐 결국 중앙과 지방을 통하여 혼연일체가 된 일단의 귀족권이 성립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들 간에 자연히 전국적인 家格의 등급이 정해지게 되었다. 宮崎市定 著, 曹秉漢 譯 《中國史》(서울, 역민사, 1986) 165쪽 참조.

새로운 世族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적지 않은 中正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權門世族에 아부하였고, 世族들은 이러한 폐단 속에 上流를 독차지하며 그들의 막강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司馬氏는 원래 명망 있는 大族으로서 정권을 장악하자 門閥을 중시하여 썩어 魏를 찬탈한 후 世族은 더욱 쉽게 정치·경제·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東晉의 元帝가 建康으로 남천할 당시 元帝를 적극 도와 이들의 권력과 지위는 강남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1) 문벌의 차별

門閥 형성의 초기단계에 있어 가족의 영예와 개인의 관리임용은 가족 전체 구성원의 생존과 흥성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世族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세력을 최대한 넓히고 또한 공고히 하려고 적극 노력하였다. 사회적으로 門閥의 지위와 명예가 확고해지고 소위 大族의 반열에 올라서면 일종의 우월감으로 여는 世族들과는 구분을 두고 경계를 짓고자 하였다. 당시 사회는 士人·平民·部曲·奴隸의 네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士人계급에는 또 世族과 寒門의 구별이 있었다. 世族과 寒門은 비록 같은 士人계급에 속하지만 둘 사이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었다. 世族은 정치권력을 소유한 사회의 최상층 계급으로 世族 사이에도 등급이 나누어져 고하가 분명하여 서로 섞이지 않았다. 門閥의 사회적 지위는 門閥의 人(구성원의 수), 時(세대의 기간), 名(명예의 정도), 位(관직의 고하)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사회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정에서는 관여할 수 없었다⁶⁾. 즉 이들의 지위는 사회와 정권의 공인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실사 황제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寒門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으나 실제 관리로 등용되는 경우가 적어 영원히 世族이 될 수 없었으며, 또한 항상 世族에게 압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두 세력은 정치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

6) 何啓民 著 《中古門第論集》(臺北, 學生書局, 1978) 2-3쪽 참조.

왕수령(王胡之)은 일찍이 동산에서 지낼 때 몹시 궁핍했다. 오정령으로 있던 도호노(陶範)가 한 배의 쌀을 그에게 보내주었으나 [왕수령은] 물리치고 받으려 하지 않으면서 단지 답하길 : “나 왕수령이 굶주리게 된다면 당연히 사인조(謝尙)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이니 도호노의 쌀은 필요 없소”라고 했다.⁷⁾

유진장(劉斌)과 왕중조(王濛)가 함께 길을 떠났는데, 날이 저물도록 식사를 하지 못했다. 안면이 있던 어떤 소인이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음식상이 매우 풍성했지만 유진장은 그것을 사양했다. 왕중조가 말하길 : “잠시 허기만 채우면 되는데 어찌 굳이 사양한단 말이오?”라고 하자, 유진장이 말하길 : “소인과는 결코 교제할 수 없소!”라고 했다.⁸⁾

門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世族들은 家風과 家學 그리고 혼인과 교류를 더욱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小人이라 지목하고 일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 당시 溫嶠 등이 蘇峻의 난⁹⁾을 평정하기 위하여 荊州刺史로 있던 陶侃에게 토벌군의 盟主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陶侃은 明帝(司馬紹)의 어린 成帝(司馬衍)를 잘 보필하라는 遺詔에 자신의 이름이 없음에 불만을 품고 거절했으나 庾亮의 설득과 노력으로 결국 盟主로 추대되어 石頭에서 蘇峻을 토벌하였다. 陶範은 陶侃의 열 제 아들로 陶侃의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이름이 났었다. 王胡之는 字가 脩齡으로 琅邪 王氏이며 謝尙은 字가 仁祖로 陳郡 謝氏의 대표적 인물 謝安의 從兄이다. 陶侃은 寒門 출신이었기 때문에 비록 큰 공을 세웠어도 大族인 王氏나 謝氏의 상대가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 아들이 무시를 당한 것이다. 이렇듯 陶範이 무시를 당한 원인은 당시 사회에 문벌의 高下 觀念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7) 王脩齡嘗在東山甚貧乏, 陶胡奴爲烏程令, 送一船米遺之, 却不肯取; 直答語: 「王脩齡若飢, 自當就謝仁祖索食, 不須陶胡奴米!」 《世說新語》 方正 卷 52 條.
8) 劉斌長, 王仲祖共行, 日 毋米食; 有相識小人貽其餐, 肴案甚盛, 斌長辭焉, 仲祖曰: 「聊以充虛, 何苦辭!」 斌長曰: 「小人不可與作緣.」 《世說新語》 方正 卷 51 條.
9) 庾亮은 蘇峻과 祖約 등을 의심하여 成帝 咸和 2년(327) 蘇峻의 병권을 빼앗고자 大司農으로 초빙, 入朝케 하였으나 蘇峻이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따르지 않고 오히려 祖約과 함께 庾亮을 추살할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咸和 3년(328)에는 도성인 建康까지 진격하여 조정의 군대를 대패시키고 庾亮의 큰 아들도 살해하였다.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53-54쪽 참조.

장현과 왕건무(王忱)는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나중에 범예장(范寧)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범예장이 두 사람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다. 그래서 장현은 단정히 앉아 옷깃을 여미었으나, 왕건무는 한참동안 찬찬히 바라만 볼 뿐 응대하지 않았다. 장현이 크게 실망하여 곧장 떠나려 하자, 범예장이 한사코 붙잡았으나 그는 결국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범예장은 왕건무의 외숙부였으므로, 왕건무를 책망하여 이르길 : “장현은 오의 명사 가운데 수재로서 또한 당세에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왕건무가 웃으며 말하길 : “장조희(張玄)가 만약 서로 알고 지내려 한다면 당연히 스스로 [나의 집으로] 만나러 와야지요”라고 했다. 범예장이 급히 장은에게 [그 말을] 전했다. 장현은 곧장 의관을 정제하고 그를 만나러 갔다. 마침내 [두 사람은] 술잔을 들고 함께 나누었는데, 손님이나 주인이나 무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¹⁰⁾

言語 卷 51 條 劉孝標 注引 《續晉陽秋》의 기사에 따르면 張玄은 吳郡太守 張澄의 손자로 어려서부터 학문으로 이름이 났으며, 吏部尚書를 역임한 뒤 冠軍將軍과 吳興太守가 되었다. 會稽內史 謝玄이 같은 때에 吳軍에 가자 눈자들은 두 인물을 남북의 名望이라고 여겼다. 張玄의 명성은 謝玄에 버금갔으며, 당시에 남북의 二女이라고 불렸다. 한편 王忱의 부친은 王坦之이고 조부는 王衛, 증조부는 王承으로 太原 王氏의 중심인물이다. 太原 王氏는 琅邪 王氏에 버금가는 大族으로 사회적 명망에 따른 우월감이 대단하였다.

사만이 형(謝安)의 앞에서 번기를 찾으려 했는데, 그때 완사광(阮裕)이 그 자리에 있다가 말하길 : “신출내기 가문은 진술하지만 예의가 없군!”이라고 했다.¹¹⁾

사공(謝安)이 일찍이 [동생] 사만과 함께 서쪽으로 나가는 길에 오군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만(謝萬)이 함께 왕남의 집을 방문하고 싶어했다. 태부(謝安)가 이르길 : “아무래도 그가 틀림없이 너를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니,

10) 張玄與王建武先不相識, 後遇於范豫章許, 范令二人共語, 張因正坐傲狂, 王熟視良久不對, 張大失望便去, 范苦留之, 遂不肯住, 范是王之舅, 乃讓王曰: 「張玄, 吳士之秀, 亦見遇於時; 而使至於此, 深不可解!」 王笑曰: 「張祖希若欲相識, 自應見語.」 范馳報張, 張便束帶造之, 遂擊鞠對語, 賓主無愧色. 《世說新語》 方正 卷 51 條.
11) 謝萬在兄前, 欲起茶便器; 于時阮思曠在坐曰: 「新出門戶, 篤而無禮.」 《世說新語》 簡傲 卷 9 條.

[내] 생각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했다. 사만은 그래도 한사코 졸랐지만 태부가 결코 마음을 돌리지 않기에 사만은 혼자서 갔다. 잠시 앉아 있다가 왕님이 갑자기 문 안으로 들어가자, 사만은 자못 기쁜 기색을 띠며 자기를 후하게 대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참 지난 뒤에 [왕님은] 머리를 감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채로 나와서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호상에 기대어 정원에서 머리를 말렸는데, 그 표정이 몹시 오만했으며 (사만을) 상대하려는 뜻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사만은 이내 돌아갔는데, 배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태부를 부르자, 사안이 말하길 : “아리(王恬)가 너를 상대해 주지 않았구나!”라고 했다.¹²⁾

陳郡 謝氏는 원래 名門大族이 아니었으나, 謝安의 조부 謝衡이 西晉때 國子祭酒를 지낸 뒤로 西晉과 東晉의 교체시기에 謝衡의 아들 謝鯤과 謝鯤의 아들 謝尚을 거지면서 점점 가문을 형성하였다. 아울러 謝安의 동생인 謝石과 조카 謝玄 등이 淝水의 전쟁에서 前秦 苻堅의 군대를 대패시키며 큰 공을 세웠고, 조정에서는 謝安이 政事를 맡고 있어 이후 謝氏는 東晉의 개국공신인 王氏와 ‘王謝’로 병칭되며 東晉 제일의 名門大族으로 尊崇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陳留의 阮氏는 東漢 시기부터 이미 名門大族이었기 때문에 阮裕가 謝氏를 ‘신출내기 가문’이라고 비꼬았던 것이다. 王恬은 東晉 중흥의 최대 공로자인 琅邪 王氏 王導의 둘째 아들로 가문에 대한 우월감으로 상대에게 지나치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門閥의 고하관념은 혼인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주군이 안동장군으로 있을 때, 사냥하러 나갔다가 폭우를 만나 여남의 이씨 집에 들렀다. 이씨 집은 부유했지만 남자가 없었다. 낙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밖에 귀인이 와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하녀 한 명과 함께 안에서 돼지와 양을 잡아 수십 명의 음식을 만들었다. [낙수는] 일마다 주도면밀하게 처리했으며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주군이] 은밀히 엿보았더니 한 여자만 보였는데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래서 주군이 첩으로 삼겠다고 청했으나 [낙수의] 부형이 허락하지 않자, 낙수가 말하길 : “쇠락한 가문에서 어찌 여자 하나를 아끼십니까? 만약 귀족과 혼인을 맺는다면 아마 장래에 큰

12) 謝公嘗與謝萬共出西，過吳郡，阿萬欲相與共萃王恬室，太傅云：恐伊不必酬，汝意不足爾！萬猶苦要，太傅堅不回，萬乃獨往：坐少時，王便入闥內，謝殊有欣色，以爲厚待己，良久，乃沐頭散髮而出，亦不坐，仍踞胡牀，在中庭，囑項：神氣頗放逸，了無相酬對意，謝於是乃還，未至船，逆呼太傅，安曰：阿嗣不作爾！《世說新語》 簡傲篇 卷12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부형이 [그녀의 말에] 따랐다. [낙수는] 마침내 백인(周顛) 형제를 낳았다. 낙수가 백인 등에게 말하길 : “내가 절조를 굽혀서 너희 집안에 첩이 된 이유는 [이씨] 가문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뿐이다. 너희가 만약 우리 집안을 친척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 역시 여생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자, 백인 등이 모두 그 말에 따랐다. 이로써 있는 살이있는 동안 정당한 예우를 받게 되었다.¹³⁾

世族은 혼인에 있어 반드시 수준이 비슷한 가문을 선택하였다. 世族과 寒門의 통혼은 당시 극히 드문 일이어서, 寒門의 딸은 世族에게 시집갈 수 있었으나 世族의 딸은 寒門에게 시집갈 수 없었다. 때로 부유한 寒門이 몰락한 世族의 딸을 얻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 世族 출신 죄인의 딸을 취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寒門의 딸은 世族에게 시집감으로써 신분상승은 물론 가문까지도 부흥시킬 수 있었기에 첩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世族의 혼인관이 얼마나 엄격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황제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世族은 가문에 대한 우월감으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門閥의 고하 관념에 매우 엄격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世族 내부의 부패와 인물의 부재로 寒門에게 점차 자리를 내주게 되어 世族의 지위는 흔들리게 되는데, 결국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볼 때 門閥이 후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 북방 이주문벌과 남방 토착문벌의 갈등

西晉 泰始 元年(265) 武帝는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일가 친척인 諸王들을 分封하였다. 이 제도는 郡을 國으로 하고, 食邑이 2만 호에 이르는 곳은 大國이라고

13) 周顛作安東時，行獵，值暴雨，過汝南李氏，李氏富足，而男子不在：有女名絡秀，聞外有貴人，與一婢於內宰養羊，作數十人飲食，事事精辦，不聞有人聲，密視之，獨見一女子，狀貌非常，後因求爲妾，父兄不許，絡秀曰：「門戶殫悴，何惜一女？若連姻貴族，將來或大益，父兄從之，遂生伯仁兄弟，絡秀語伯仁等：『我所以屈節爲汝家作妾，門戶計耳；汝若不與吾家作親親者，吾亦不惜餘年！伯仁等悉從命，由此李氏在世，得力幅齒遇。』《世說新語》 賢媛篇 卷18조.

하여 3軍을 두어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食邑이 1만 호인 곳은 次國이라 하여 2軍을 두어 3천 명의 군대를 가졌고, 食邑이 5천 호가 되는 자는 1軍을 두어 1천 5백 명의 군대를 가졌는데, 그 해 자그마치 27명의 王이 分封되었다. 처음 諸王들은 모두 京師에서 임명되었으나 그들 모두 병권을 갖고 있어 스스로 자기 나라에서 文武官吏를 선택할 수 있었다. 咸寧 3년(277)에 晉은 諸王들을 각각 그들의 나라로 보내고, 그 중 일부 王들에게는 諸州의 軍事를 감독하게 하였다. 14) 이러한 조치는 수시로 큰 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어 결국 八王의 亂¹⁵⁾이 일어나게 된다. 永熙 元年(290) 武帝가 죽고 연소한 惠帝가 즉위하자 武帝의 황후 楊氏는 선황의 遺詔라 하여 그녀의 아버지 楊駿을 재상으로 앉히고 국정을 유린하였다. 惠帝의 황후 賈氏는 汝南王 司馬亮과 楚王 司馬瑋를 서울로 불러 올려서 楊駿 일족을 도살한 후, 연이어 司馬亮과 司馬瑋를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永寧 元年(301) 趙王 司馬倫은 賈氏 일족을 제거하고 惠帝를 폐한 후 스스로 황위에 올랐으나, 齊王 司馬冏과 成都王 司馬穎의 공격을 받아 자살하고 惠帝가 복위되었다. 그 후 長沙王 司馬乂, 東海王 司馬越, 河間王 司馬顥도 군사를 일으켰으며, 司馬越이 冏과 顥를 죽인 후, 웅담한 惠帝가 죽자 懷帝를 즉위시키면서 晉室의 諸王이 서로 골육상잔하는 16년간의 참극은 막을 내렸다. 西晉은 여러 지역에 군사적 기반을 둔 分封王들의 권력투쟁과 내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특히 元康 元年(291)부터 光熙 元年(306)까지 16년에 걸쳐 벌어진 이 八王의 亂은 西晉의 기반을 무너뜨린 결정타였으며, 諸王들이 병력보급을 위하여 끌어들이던 匈奴·鮮卑 등 북방 胡族은 그 후 華北 각지에서 성장하여 이른바 五胡十六國 난립의 주원인이 되었다. 八王의 亂 이후 匈奴의 石勒은 서국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洛陽을 향해 진군, 劉曜와 힘을 합쳐 洛陽을 함락시키고 八王의 亂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東海王 越이 웅담한 懷帝를 사로잡아 사형시켰다. 懷帝의 조카인 愍帝는 洛陽 함락의 소식을 듣고 長安에서 천자에 등극하였지만,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공격을 받고는 平陽에 송치되어 죽음을 당했다. 이 시기 匈奴族 뿐 아니라 氐族, 鮮卑族 등의 異民族

14)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32쪽 참조.
15) 皇族(司馬氏) 8명의 왕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며, 八王은 汝南王 亮·楚王 瑋·趙王 倫·齊王 冏·長沙王 乂·成都王 穎·東海王 越과 河間王 顥을 가리킨다.

이 도처에서 일어나 민족간의 충돌이 진행되고 천하는 형언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 결국 西晉은 무너지고 吳의 옛 도읍인 建康을 중심으로 부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¹⁶⁾

처음에 江南으로 옮겨와 東晉의 왕실은 많은 문제에 봉착하여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전국的 民心을 안정시켜야 했고, 북쪽 이민족의 남하도 저지해야 할 뿐 아니라 南北 土族들의 관계 역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습착치와 손홍공(孫綽)이 아직 면식이 없었을 때, 완공(桓溫)이 마련한 자리에 함께 참석했다. 완공이 손홍공에게 말하길: “습참군(習鑿齒)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오”라고 하자, 손홍공이 말하길: “꿈틀거리는(蠢爾) 만행이 감히 대국과 맞서려 하다니!”라고 했더니, 습착치가 말하길: “힘을 토벌하여 태원에 도달했지!”라고 했다.¹⁷⁾

習鑿齒는 남방의 荆楚 지역인 襄陽 사람이고, 孫綽은 太原 사람으로 전형적인 북방의 僞姓 출신이다. 두 사람은 당시 명성을 떨쳤던 문인학자로 서로 면식이 없었지만 《詩經》의 시구를 가지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排調편 제41조 劉孝標 注引《毛詩》注의 기사에 따르면 荆蠻은 荆 지역의 蠻族이며, 獫狁은 북방 이민족인 흉노족이다. 또한 蠻은 남방 이민족에 대한 卑稱이고 荆은 楚나라, 大邦은 천자의 나라인 周를 가리킨다. 孫綽은 周 宣王의 남방 楚나라 정벌을 묘사한 시¹⁸⁾로 荊州 襄陽 출신인 習鑿齒를 빗대어 조롱하였다. 習鑿齒 역시 대학자답게 周 宣王의 북방 獫狁 정벌을 묘사한 시로 당시 북방 이민족 통치지역인 太原의 孫綽을 獫狁에 빗대어 조롱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제공자는 대부분 북방 土族들이었으며, 논쟁이 일단 발생하면 남북의 土族들 모두 학문적으로 절대 뒤지려 하지 않았다.

16) 金鎮永《世說新語의 품평을 통해 본 謝玄의 인물형상》:《中國文化研究》2007, 11輯 126쪽 제인용.

17) 習鑿齒 孫興公木相識, 同在桓公坐: 桓語孫: 「可與習參軍共語? 孫云: 「『蠢爾蠻荆, 敢與大邦爲讐?』 習云: 「『薄伐獫狁, 至于太原,』」《世說新語》排調편 제41조.

18) 《詩經》〈小雅·采芣〉에 「蠢爾蠻荆, 大邦爲讐」라는 구절이 있음.

왕송상(王導)이 처음 강남으로 건너왔을 때, 뭇지방 인사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여 육태위(陸阮)에게 혼사를 맺자고 청했더니, 대답하길 “작은 언덕에는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자라지 않고, 향초와 약초는 같은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도의상 윤리를 어지럽히는 시작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¹⁹⁾

육태위(陸阮)가 왕송상(王導)을 방문했더니, 왕공(王導)이 [그에게] 타락죽을 대접했다. 육태위는 돌아간 뒤에 결국 병이 났다. 다음 날 [육태위]가 왕송상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길 “어제 타락죽을 조금 많이 먹은 탓에 밤새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뭇땅 사람이지만 거의 [북방] 촌놈의 귀신이 될 뻔했습니다”라고 했다.²⁰⁾

손수가 뚱에 투항하자, 진 무제가 그를 매우 총애하여 치제 괴씨를 [그에게] 시집보냈는데 부부 간의 금슬이 매우 좋았다. 부인이 한 번은 투기하다가 손수에게 ‘오소리 새끼(貉子)라고 욕을 했다.²¹⁾

위의 세 고사는 남쪽으로 내려온 북방인과 토착 남방인과의 대립상황이 배후에 깔려 있다. 감정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져 출신 지역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경멸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였다. 「작은 언덕(培塿)에는 소나무와 측백나무(松柏) 같은 큰 나무가 자랄 수 없으며, 향초인 薰과 약초인 蕪는 같은 그릇에 담을 수 없다(培塿無松柏, 薰蕪不同器)」라는 《左傳·襄公24年》條와 《孔子家語》 卷2 〈致思〉의 구절을 이용하여 南과 北이 함께 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한편 ‘타락죽(酪)’은 양이나 소의 젖을 발효시켜 만든 반응고 상태의 유제품으로 북방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북방의 음식인 타락죽을 먹고 거의 죽을 뻔 했다는 표현을 당시 토착 남방인들이 남쪽으로 이주해 온 북방인들을 멸시하여 부르던 ‘僞’을 사용하거나, 북방인이 남방인을 무시하는 ‘貉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모습

19) 王丞相初在江左, 欲結援吳人, 請婚陸太尉, 對曰:「培塿無松柏, 薰蕪不同器; 玩雖不才, 義不爲亂倫之始。」《世說新語》 方正 卷 24 上。

20) 陸太尉詣王丞相, 王公食以酪, 陸還遘病; 明日, 與王幾云:「昨食酪小過, 通夜委頓; 民雖吳人, 幾爲僞鬼。」《世說新語》 排調 卷 10 上。

21) 孫秀降晉, 晉武帝厚存寵之, 妻以姨妹謝氏, 室家甚篤, 妻嘗妬, 乃罵秀爲「貉子」。《世說新語》 惑溺 卷 4 上。

에서 남방인과 북방인 사이의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할 수 있다.

한편 吳나라 멸망 이후 吳·蜀·荊·楚의 士族을 무시하는 풍조가 당시 사회에 만연했으며, 남방의 士族들은 晉室에서 차별과 멸시로 뜻을 이룰 수 없어 호시탐탐 復國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²²⁾. 이에 東晉은 吳地의 名賢인 顏榮과 賀循 등을 이용하여 江南의 士族세력들을 진정시키고 민심을 장악하려 하였다. 《晉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吳나라 사람 紀瞻과 顧榮은 모두 강남의 명망있는 인물로 몰래 그들을 살펴보니 정말 그와 같았다. 모두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서로 길옆으로 가서 멀리 인사를 드렸다. 王導는 이에 나아가 계책을 말하기를 “옛 임금들은 원로에게 賓禮를 하였는데, 풍속을 묻고 자신을 낮추어 귀를 기울인으로써 賢才를 불러모았습니다. 하물며 천하가 혼란스럽고 九州가 분열되어 대업을 열어가 고자 하는데 인물을 얻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겠습니까? 顧榮과 賀循은 이 지역의 명망있는 인물로 그들을 끌어들이어 인심을 얻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온다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元帝는 이에 王導를 직접 賀循과 顧榮에게 보내니 두 사람은 모두 왕명을 따라 왔고, 이로 인해 吳地는 풍속이 풍미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왔다. 이후로 점차 서로 받들어 모시게 되니 군신의 예가 비로소 안정되었다.²³⁾

東晉의 명제상인 王導는 탁월한 정치가였다. 그는 以吳制吳의 책략과 유희정책으로 南北의 갈등 해소에 주력하였다.

유진장(劉俊)이 처음 왕송상(王導)을 만났다. 그때는 한창 더운 계절이었는데, 송상이 배를 탄기 판에 갓다대며 말하길 “어쩌면 이렇게 차가울까?”라고 했다. 유진장이 나온 뒤에 어떤 사람이 묻길 “왕공(王導)을 만나보니 어떻게 되니까?”라고 하자, 유진장이 말하길 “다른 특이한 점은 보지 못했고, 다만 吳語를 사용하는 것만 들었소이다”라고 했다.²⁴⁾

22) 顧榮과 華譚 등은 남방 士人들의 권익보호와 정권진출을 위한 정치집단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다졌으며, 東晉 초기 강동의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蔣凡 著 《世說新語的讀法》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 156쪽 참조.

23) 吳人紀瞻, 顧榮, 皆江南之望, 竊視之, 見其如此, 咸歎懼, 乃相拜於道左, 導因進計曰, 古之王者, 莫不賓禮故老, 存問風俗, 虛己傾心, 以招俊乂, 況天下喪亂, 九州分裂, 大業草創, 急於得人者乎! 顧榮, 賀循, 此士之望, 未若引之以結人心, 二子既至, 則無不來矣. 帝乃使導躬造顧, 榮, 二人皆應命而至, 由是吳會風靡, 百姓歸心焉, 自此之後, 漸相崇奉, 君臣之禮始定. 《晉書》 卷65 (王導傳).

여기에서 ‘海’은 뭇지방에서 ‘차갑다(冷)’의 의미로 사용하는 方言을 가리킨다. 余嘉錫은 《世說新語箋疏》의 按語에서 「王導과 劉惔은 원래 북방인이고, 또한 모두 士族인데도 王導가 무슨 까닭으로 吳語를 사용하여 劉惔을 맞이하였을까? 이는 東晉 초기 국가의 기반이 아직 공고하지 않아 王導가 江東의 인심을 달래고자 일부로 吳語를 사용한 것이다」²⁵⁾라고 밝힌 陳寅恪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東晉 초기 정치적 기반이 아직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吳인의 民心을 달래기 위해 북방인의 조롱거리인 吳語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王導가 언어의 정치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육완이 사공에 임명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좋은 술을 구하길래 주었더니 곧장 일어나 대들보와 기둥 사이에 [그 술을 부으면서] 축도하길 “지금 인제가 부족하여 너를 주춧돌의 쓰임으로 삼았으니 남의 동량을 기울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자, 육완이 웃으며 말하길: “그대의 훌륭한 충고를 가슴에 새기리라”라고 했다.²⁷⁾

원제(司馬睿)가 처음 강남으로 옮겨와서, 고표기(顧榮)에게 이르길: “남의 나라 땅에 거거하니 마음에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는구료”라고 하자, 고표기가 무릎을 꿇고 대답하길: “신이 듣자오니,王者는 온 천하를 집으로 여긴다 하옵니다. 그래서 은나라는 경으로 밖으로 도움을 옮겨 일정한 곳이 없었으며, 주나라는 구정을 낙읍으로 옮겼사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천도하신 것을 때넘치 마옵소서”라고 했다.²⁸⁾

24) 劉眞長始見王丞相, 時盛暑之月, 丞相以腹嬰麴罍局, 曰: 何如乃海? 劉眞出, 人問: 見王公如何? 劉曰: 「未見他異, 唯作吳語耳!」 《世說新語》 排調篇 第13조.
 25) 王導, 劉惔本北人, 而又皆士族, 導何故用吳語接之? 蓋東晉之初, 基業未固, 導欲籠絡江東人心, 作吳語者,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794쪽 참조.
 26) 당시 강남에서 士族들은 북방어를 쓰고 일반 백성들은 當地的 吳語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몇 마디만 들어도 그 신분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류사회에서 吳語를 사용하면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남방 출신이라 하더라도 상류사회에 들어서게 되면 吳語를 쓰지 않고 바로 북방어를 사용할 정도였다.
 27) 陸玩拜司空, 有人詣之, 索美酒, 得, 便自起, 瀉器梁柱間地, 祝曰: 當今乏才, 以爾爲柱石之臣, 莫顧人棟梁! 玩笑曰: 「感卿良識,」 《世說新語》 規箴篇 第17조.
 28) 元帝始過江, 謂劉惔曰: 「寄人國土, 心常懷憂,」 榮跪對曰: 「臣聞王者以天下爲家, 是以取, 毫無定處, 九鼎遷諸洛邑, 願陛下勿以遷都爲念,」 《世說新語》 言語篇 第29조.

《世說新語》 政事篇 第13조 劉孝標 注引 《陸玩別傳》에 따르면 陸玩은 吳郡 사람으로 吳郡에서 이미 명망이 나있던 조부 陸瑄와 부친 陸英의 뒤를 이어 그도 기량면에서 명성이 자자하였다. 당시 王導와 郗鑒·庾亮 등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자 조정에서는 陸玩을 司空에 임명하였다. 陸玩은 사양하였으나 「나를 三公으로 삼은 것을 보니 천하에 사람이 없는 모양이오」 라고 하며 수락하였다. 북방 士族들의 인물의 부제로 남방 士族들은 정계로 진출할 기회가 점차 많아지게 되었고, 또한 같은 漢族 士人の 입장에서 정권을 안정시키고 북방 이민족에게 빼앗긴 失地를 회복하기 위해 조정에 결국 협력하였다.

3. 맺음말

門閥은 고대 家族이 발전되어 형성된 특수한 계층으로, 사회적 지위라는 관점에서 門閥 또는 閥閥이라고 한다. 한편 門閥은 가족의 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名族·高族·高門大族이라고 불리우며, 정치·사회·정치 등 다양한 방면에서는 士流·士族이라고도 한다. 그 외 관점에 따라 다소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世族 등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 그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다. 이 독특한 문화현상은 가문의 결속이라는 긍정적인 면에서 시작되었으나,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형성된 특수 계급이었다. 즉 정권에 협력하는 것은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에 충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門閥 내부의 부패와 인재의 부제로 군사와 정치권력이 寒門과 남방의 세력들에게 넘어감에 따라 門閥士族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며, 이후 九品中正制의 폐지와 과거제의 실시로 평민과 寒門이 대거 정계에 진출할 수 있게 되자 門閥의 정치적·사회적 특수 지위는 점차 소멸되었다. 東晉시기 門閥의 모습은 독특한 시대분위기 속에 門閥 간의 자등과 남방과 북방의 대립이라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門閥 간의 대립은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또한 五代에 이르러 門閥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후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東晉이 쇠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통치 집단 속에서의 門閥 간 알력과 대립이 큰 역할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參考文獻》

— — 《晉書》 臺北, 鼎文書局, 1980.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徐震堦 《世說新語校箋》 北京, 中華書局, 1984.

楊 勇 《世說新語校箋》 臺北, 正文書局, 1992.

金長煥 《世說新語》(上·中·下) 서울, 살림出版社, 1996·1997·2000.

宮崎市定 著, 曹秉漢 譯 《中國史》 서울, 역민사, 1986.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 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白壽彝 主編 印효섭 · 임춘성 譯 《중국통사강요》 서울, 이론과 실천, 1991.

何啓民 著 《中古門第論集》 臺北, 學生書局, 1978.

宗白華 著 《美學散步》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1.

李澤厚 著, 윤수영 譯 《美的歷程》 서울, 東文選, 1991.

寧稼雨 著 《世說新語與中古文化》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劉緒貽 著 《中國的儒學統治》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6.

蔣凡 著 《世說新語英雄譜》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

蔣凡 著 《世說新語的讀法》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

《中文提要》

門閥是中国中古时期一个重要的文化现象。門閥为家族在中古所发展形成的特殊形态。从家门社会地位方面看, 有人称之为門閥、閥閥; 从家族名声方面看, 有人称之为名族、高族、高門大族、世族; 若从政治、文化、社会诸方面看, 有人称之为士流、士族等。这几个称呼, 所指角度各有不同, 意义也有细微的区别, 但总的来说是大同小异的。

组成当时社会的成员很复杂, 最上位阶层就是士人。士人阶层中并有世族和寒门的贵贱区分。彼此间等级划分极严格, 不容混淆。一个人出生於士族或世族, 尤其是盛族名门, 他在社会上青云直上之前, 不必一定具备深高的学问知识。因为他的出身, 就会给他带来当时社会上人们所艳羨、尊崇的一切。他被免除一切赋税、徭役和兵役, 得以蓄养奴隶和半奴隶为他们劳作, 聚敛财富。他生而享有极高的社会威望, 迟早会在政治上飞黄騰达。在诸多情况下, 他有生死与夺之权, 更不用说其他小的特权了。

南渡的诸姓称为侨姓。在南方也有土着世族, 称为吴姓, 但吴姓的地位远不如侨姓。大体说来, 东晋政府对南士采排斥态度, 南士也不愿与之积极合作, 因此土着与侨民之间隔阂极深。士族的南北斗争, 似有愈演愈烈的趋势, 後來逐渐扩大为南北相互攻击譏罵的地域偏見。中原士族之歧视南士, 从心照不宣的不成文规矩, 一变而为朝廷的明文制度。而且这样的公然歧视与排挤, 愈加激发了南士的愤恨与对立情绪。南北士族的宗派对立和門閥纷争, 後果极其严重。东晋初期就曾因此而引发江东士族豪强的叛乱。士族之对立, 破坏了民族的团结, 削弱了国家的力量。这可以说是門閥的否定的结果。

到了东晋时代, 門閥发展到一个具体的、完整的社会阶层。本文先简单地考察門閥出现的社会的、政治的背景, 然後通过《世说新语》里門閥故事全盘地考察东晋时代門閥的面貌和其特徵。

關鍵詞: 世说新语 东晋 門閥 世族 寒門

이 논문은 2012년 5월 15일에 접수되어 2012년 6월 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2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